

인간의 意識현상도 이때에 출현한 것으로 추측된다.

精神이라고 하는 현상을 知能과 意識을 동시에 가지는 상태라고 본다면 인간의 정신은 대략 세번째 비뇌증대 과정에서 출현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오직 인간만이 가지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意識유무의 객관적 관측이 아직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신의 기원을 진화과정속에서 명백히 추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 文明의 發達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韓 相 福

人類의 文明이 어떻게 發達하여 進化해 왔는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인류의 身體的進化를 알아보고 그것이 文化發達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인류의 진화과정을 알려면 그 化石을 조사해보아야 하며, 문화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려면 인류의 진화과정에 따른 遺跡을 통해서 인류생활의 변화를 알아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발견된 인류의 化石에 따르면 가장 오래된 人類의 祖上은 약 300만년 전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이다. 그 이전의 트리오피테쿠스는 人科와 猿科가 갈라지기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인류만의 조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頭蓄容積이 500cc 가량이며 直立步行을 했고 자갈을 道具로 사용하고 集團狩獵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化石들은 아프리카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약 100만년 전의 호모 에렉투스 化石은 자바·중국·독일 등에서 발견되었는데, 두개용적이 1,000cc 가량이고 조잡한 打製石器를 만들어 썼으며 불을 사용하고 아주 원시적인 言語들 구사했을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때까지의 인류문화를 前期 舊石器時代의 문화라고 한다.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 化石은 독일·프랑스·영국 등 서부유럽에서 발견되었는데, 약 35만년 전의 것으로 두개용적이 1300~1400cc였

다. 그들은 동굴에 살았으며 시체에 붉은 황토 칠을 하여 매장하는 등 원시적인 宗教觀念을 가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시대를 우리는 문화적으로 中期舊石器時代라고 부른다. 약 4만년 전의 호모 사피엔스 化石은 아프리카·아시아·유럽 전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오늘날의 우리들 現生人類와 같은 屬과 種에 속한다. 두개용적도 우리와 비슷한 1500~1600cc에 이른다. 이들은 정교한 石器와 木器 骨角器를 만들어 썼고 半地下式 家屋에서 집승의 가족으로 衣服을 만들어 입었으며 동굴 壁畵와 彫刻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것들을 後期舊石器時代의 문화라고 한다.

인류가 野生의 植物을 재배하고 動物을 길들여서 農業과 牧畜을 시작한 것은 약 1만년 전부터 시작되는 新石器時代이다. 이때부터 인류는 여러가지 정교한 磨製石器를 만들어 썼고 차츰 靑銅器와 鐵器를 제작하였으며 농경생활로 剩餘生産이 가능해짐에 따라 分業이 발달하고 都市가 발생하여 古代文明을 이룩하게 되었다. 특히 5,000년 전의 발명된 文字는 지식의 누적을 가능케하여 오늘의 科學이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을 이룩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舊世界の 에집트·메소포타미아·인도·중국 문명과 新世界の 마야·인카·아즈텍문명 등 인류의 古代文明이 그러한 신석기시대의 혁명인 농업을 기반으로 하여 잉여생산과 분업에 의한 인류문화의 발달이라면, 바퀴(輪)와 冶金術·蒸氣·內燃기관 등의 발명을 기초로 한 200여년 전의 産業革命은 非人間에너지와 機械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산업혁명은 그후에 계속해서 일어난 새로운 科學의 발달과 發明, 發見을 중심으로 한 現代機械文明의 母體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過去의 인류문화와 문명의 발달과정을 알고, 現在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한다면 우리는 未來의 인류문화와 문명의 展望도 유추해서 豫測해 볼 수 있을 것이다.